■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609-629.
http://doi.org/10.17948/kcs.2019..85.609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동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남호(李南昊)**

목 차

1. 서론
2. 좋은 시의 요건
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동시 검토
4. 결론

국문초록

시는 언어 감각을 기르고 세상을 신선하고 예민하게 인식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시는 유용한 교육용 텍스트이다. 하지만 모든 시가 교육용 텍스트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좋은 시가 그렇지 못한 시보다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시 장르에 대한 선입견이다. 둘째, 작품보다 학습목표를 중시하는 논리이다. 셋째, 탈(脫)정전화 경향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아동문학 비평 담론이 부족한 것이다. 아동문학 비평 담론이 적으면 아동문학사가 약해진다. 아동문학사가 약해지면 아동문학교육이 내・외부 논리에 좌우되기 쉽다. 동시 선별을 개인이 도맡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본고에서는 시 일반의 주요 비평적 관점을 참고로 어느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정도 보편적인 비평 기준을 마련한다. 해당 기준은 '정확함', '실감', '새로움'이다. 그리고 세 기준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를 실제로 비평한다. 이를 통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동시의 문학성을 높이고 아동문학 비평 담론이 풍성해지는 데 보탬이 된다.

주제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동시, 실제 비평, 문학성.

1. 서론

시는 "보통의 언어보다 고도로 조직된 언어"로 "인간의 복잡 미묘한 느낌과 태도와 생각을 여실하게 전달"한다.[1] 시는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언어화하는 예술 형식으로서 언어의 재현 능력을 갱신하고 "세계와 언어의 간격을 좁힌다."[2] 시는 언어 감각을 익히고 세상을 신선하고 예민하게 인식하는 데 유용한 텍스트이다.

하지만 모든 시가 교육용 텍스트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좋은 시가 그렇지 못한 시보다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동시 장르에 대한 선입견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대부분 동시가 수록된다. 사람들은 종종 동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동시가 시보다 쉽고 단순한 것이 상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적 인지의 충격은 동시처럼 "비근한 것에서 순간적으로 성취되는 경우"가 흔하며, 유년기 동시 체험에는 정신의 "심층적 차원이 개입"할 가능성도 크다.[3] 이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아동문학이야말로 범작(凡作)이 불필요하다."[4]

둘째, 학습목표를 작품보다 중시하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명문화되고 본격화되었다. 당시 아동문학교육을 연구하던 사람

1) 김종길, 『詩에 대하여』, 민음사, 1986, 16면, 21면.
2) 이남호,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 『한말연구』 제35호, 한말연구학회, 2014, 148면.
3)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b, 111면, 113면.
4) Lillian Smith, 『兒童文學論』, 김요섭 옮김, 교학연구사, 2000, 8면.

들의 비판적인 언급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가령 제7차 교육과정 문학교육을 "언어기능주의에 포위된 문학교육"이라고 한 김제곤이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집필한 후 동시를 언어 자료로 취급하며 원문을 축약・개작하는 상황을 토로한 이경화의 논의가 그러하다.[5][6]

셋째, 탈(脫)정전화 경향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동시의 문학성을 고민하지 않는 데는 문학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논리도 작용한다. 류덕제・임성규가 말한 대로 "한국 아동문학 유산에 빼어난 작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수준 낮은 동시대 작품이 '열린 교재관'과 '정전의 해체'를 방패막이 삼아 교과서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7]

이것은 일본 소학교 교과서에 동시가 수록되는 양상과는 대조적이다. 송희복에 의하면 일본 소학교 국어 교과서는 대부분 문학사적으로 검증된 시를 수록한다. 그리하여 학습목표와 전혀 상관없이 시 자체로 "미독(味讀)"할 만하다.[8] 물론 일본 교과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수록 동시의 문학성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9]

그렇다면 어떻게 교과서에 수록되는 동시의 문학성을 높일 것인가. 본고에서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최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를 비평한다. 이후 자세히 논하겠지만, 시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를 유보하고, 관점을 달리하여 시 교육에 접근

---

5) 김제곤,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 창작과비평사, 2003, 78면.

6) 이경화, 「국어 교과서 집필의 걸림돌과 지향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육』, 어린이도서연구회, 2001, 31-35면.

7) 류덕제・임성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시 제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6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4, 74면.

8) 송희복, 「한일(韓日)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와 동화」, 『한국문예창작』 제8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9, 391-396면.

9) 송희복은 논문에서 한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러 편의 동시를 비교한다. 그중 하나가 한국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춤을 추어요」와 일본 소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그네(ぶらんこ)」이다. 송희복이 「춤을 추어요」와 「그네」를 비교하는 근거는 둘 다 1학년에서 다루어지고, 율동감이 느껴지며, 부사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두 시의 수준 차는 확연하다. 아래 「그네」 원문과 번역은 송희본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송희복, 앞의 글, 390-391면.

하기도 한다.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시가 교육에 유용하다거나,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시가 교육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식의 논의가 그러하다. 이러한 논의는 시 교육을 다각도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 교육에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은 좋은 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동문학교육 연구자들은 아동문학에 관한 비평 담론이 적은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겨왔다. 자기 안목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동시를 비평하는 일이 적고, 그로 인해 아동문학사가 약해져 아동문학교육이 내・외부 논리에 흔들린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구성할 때 좋은 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부차화되는 문제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깊다. 선행 연구를 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문제점을 인상적으로 나열하거나, 한두 개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실한 비평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 제2장에서는 시 일반에 관한 비평적 관점을 고려하여 좋은 시의 요건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는 해당 요건에 근거하여 최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시를 비평한다. 제4장은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표〉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동시 비교

한국 국어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일본 국어 교과서 (소학교 1학년)	
춤을 추어요	ぶらんこ	그네
춤을 추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어깨를 으쓱으쓱 엉덩이를 흔들흔들. 덩실덩실 신나게 춤을 추어요.	ぶらんこに 乗って, 力いっぱい こいだ. 一 二 三 四 五 足が ぴんと 伸びる. うわぎが 背中に くっつく. すうっと 下りる 時, 胸が からっぽに なるようだ.	그네를 타고 힘껏 굴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가 쭉 펴진다. 윗옷이 등에 착 달라붙는다. 쑤욱하고 내려갈 때,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다.

2. 좋은 시의 요건

어떤 시가 좋은 작품인지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정확한 안목과 엄정한 비평을 요구한다. 그러한 안목과 비평은 자체로 드물다. 또 개인에 따라 취향이 다르고 시대마다 상황이 달라서 절대적인 비평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 영어에서 'critic(비평가)'과 'crisis(위기)'는 어원이 같다. 둘 다 '구별하다', '판단하다'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krinein'에서 비롯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critical'에는 '비평의'와 '위기의'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비평은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특정한 종류의 판단을 내리는 일이며, 비평가는 늘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 것이다. 비평의 어려움을 비평의 어원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여기에는 작품을 판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언어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 어려움은 어느 정도는 의식적인 노력의 문제이다. 하지만 "시적 경험도 다른 어떤 경험과 마찬가지로 단어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10] 관련하여 엘리엇은 "가장 숙달된 비평가도 필경에는 그에게 진품으로 보이는 시를 가리킬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11]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좋은 시의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아주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비평 일반에서 자주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기준들은 존재한다. 본고는 그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비평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정확함'과 '실감'과 '새로움'이다.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주요한 기준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정확함'은 문법의 올바름과 의미의 분명함을 뜻한다. 대부분 좋은 글은

---

10) T. S. Eliot,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 p.8. "The experience of poetry, like any other experience, is only partially translatable into words." 해당 구절 인용은 이창배의 번역을 따랐다. 이창배, 『T. S. 엘리엇 문학비평』, 동국대 출판부, 1999, 178면.

11) Ibid., p.8. "Even the most accomplished of critics can, in the end, only point to the poetry which seems to him to be the real thing." 해당 구절 인용은 김종길의 번역을 따랐다. 김종길, 『시와 삶 사이에서』, 현대문학, 2005, 268면.

정확하다. 시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시는 때때로 시적 효과를 높여주는 어색한 표현과 비문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허용의 범위가 무한정하지는 않다. 시에서 "새로운 말, 새로운 어법,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냈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어떠한 뜻으로든 적절해야 한다."[12] 즉, 시에서 사용되는 어색한 표현과 비문은 그것이 일상 언어로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그 밖의 시어는 일종의 언어로서 마땅히 문법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시적 허용은 보다 엄격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어떤 시어가 어색하거나 비문일 때 함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철저한 언어사용'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감(實感)'은 '실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뜻한다. 한 편의 시에서 실감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소재나 주제가 일대일로 작용하여 실감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만 실감을 주는 것도 아니다. 진선희가 보여주듯 학생들은 "솔가지 한 짐 팔아" "고무신"을 사 신는 내용도 즐겨 읽고 이해한다. 요점은 소재나 주제가 무엇인가보다 그것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다루는가, 즉 "경험의 형상화 정도"이다.[13] 그렇다면 다시 '경험의 형상화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기서 김종길은 시의 '이로(理路)'를 제안한다.

이로(理路)는 시인 윈터즈(Yvor Winters)가 사용한 개념이다. 윈터즈가 언급한 'rational structure'를 김종길이 이로로 번역하였다. 김종길에 의하면 "시도 말이기 때문에 시 작품도 우선 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되고 안 됨은 (…) 시적 논리에 있어 높은 개연성 내지 필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문제"이다.[14] 이때 개연성과 필연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근거가 이로이다. "한 편의 시는 〈理性的 構造rational structure〉, 즉 패러프레이즈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15] 물론 이로를 갖추었다고 하여 모두

12) 김종길, 앞의 책, 1986, 352면.
13) 진선희, 「초등학교 시 교재 선정 기준 탐색」, 『청람어문교육』 제28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240면.
14) 김종길, 앞의 책, 2005, 11-12면.
15) 김종길, 앞의 책, 1986, 329면.

좋은 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理路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현실감각을 완전히 포기"하면 결코 좋은 시가 될 수 없다.[16]

마지막은 '새로움'이다. 좋은 시는 표현이나 발상에 새로움이 있다. 이때 새로움이라는 말은 반대말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보통 새로움의 반대말은 낡음이다. 하지만 문학에서는 조금 다르다. 문학에서 새로움의 반대말은 낡음보다 상투성이다. 상투성은 다시 상투적인 표현과 생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상투어'라고 한다. 후자는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상투어(常套語)는 '늘 버릇처럼 쓰는 말'이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거나 상황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상투어는 사람들에게 익숙하므로 금방 이해된다. 달리 말하면, 실질적 의미보다 관용적 의미가 앞선다. '주옥같다'는 형용사가 있다. 옥구슬(珠玉) 같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옥같다'는 오늘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 본래 의미를 환기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해당 표현을 '아름답고 훌륭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힘차고 거친 행진곡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주옥같은 음악'이라고 표현한다. 상투어가 된 것이다.

상투어가 실질적 의미보다 관용적 의미가 앞서는 표현이라면 고정관념은 구체적 사고보다 전형적 사고가 앞서는 생각이다. 실제 세상은 매 순간 변하고, 개인에게 들어오는 정보량은 상당하다. 이 모두를 낱낱이 생각하는 일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 여러 도식(schema)에 의존하여 세상을 전형적으로 사고한다. 이 점에서 전형적 사고는 유용하고 또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변성과 구체성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왜곡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질 때, 상투적인 생각은 자기에 관한 것이든 세상에 관한 것이든 새로움이 없는 '빈 생각'이 된다.

편의상 상투적인 표현과 생각을 분리하였지만, 두 가지는 밀접하다. 김우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상투어는 빈말이다. 빈말이라는 것

16) 같은 책, 327면.

은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생각을 유발하지 않는다."[17]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시인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섬세한 변조 없이 되풀이되는 틀에 박힌 말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낀다.[18] 그리하여 시인은 세상을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낯설게, 상투적이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언어를 이전까지 사용하던 방식과 다르게, 상투적이지 않게 사용하여 그것을 표현한다. 이로부터 새로움이 발생한다. 시의 새로움은 기이하고 엉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관과 다르게 바라보는 동시에 세상을 이전보다 진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정확함', '실감', '새로움' 외에도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쉽고, 비교적 중복이 적으며, 시 일반의 주요 비평적 관점을 고려한 기준들로 판단된다. 좋은 시의 충분조건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필요조건으로서는 주장될 만하다. 한편, 시 비평 일반의 기준을 동시 비평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도 일종의 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찍이 릴리언 스미드(Lillian Smith)는 아동문학과 일반문학을 나누어 전자를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에 반대하면서 아동문학 역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평 기준 밑에 놓여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19] 본고의 입장도 이와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시들을 검토해 보자.[20]

---

17) 김우창, 『시인의 보석』(2판), 민음사, 2015, 38면.
18) 같은 책, 39면.
19) Lillian Smith, 앞의 책, 2000, 서문.
20) 본고에서는 미적 체험으로서 종합적인 동시 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검토 범위를 4, 5, 6학년으로 한정한다. 관련하여 다음 논문 참조. 진선희, 「초등학생의 시 읽기 과정에 드러난 시적 체험 특성 연구 (1)」, 『문학교육학』 제1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510-557면.

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동시 검토

1) 정확함

운동화를
햇발 바른 곳에
키대로 세웠습니다.

엄마가 헌 칫솔로
삭삭 박박 문질러 씻은
내 운동화

놀이터에서
친구 다리 걸어
넘어뜨린 일
떡볶이 가게에서
흘렸던 고추장 국물
뽕뽕 게임방에서
놀고 왔던 흔적이 지워지고

운동화는 한나절
느긋하게 낮잠을 잡니다
꿈까지 꿉니다.

정두리, 「운동화 말리는 날」 전문[21]

'정확함'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를 살펴보자. 2009개정 『국어 5-1 ㉮』에 실린 「운동화 말리는 날」이다. 동시는 엄마가 화자의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서 햇볕에 말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우선 1연의 "햇발 바른"이다. 햇발은 '사방에 뻗친 햇살'을 뜻한다. 여기에 형용사 '바른'을 붙이기는 어렵다. 물론 '바르다'에는 '그늘이 지지 않아 볕이 잘 든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로 '바르다'가 사용될 때,

21) 교육부, 『국어 5-1 ㉮』, 미래엔, 2014c, 148면.

짝이 되는 말은 '양지'이다. 즉, 연어(collocation)로서 '양지 바른'은 성립하지만, '햇발 바른'은 성립하지 않는다. 2연 "박박 문질러 씻은/ 내 운동화"라는 구절도 어색하다. 보통 운동화를 세탁하는 일은 '빤다'고 표현한다. 도구를 사용할 경우 '닦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화를 '씻는다'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어색한 표현이다.

"벌레 먹어
숭숭 뚫렸어요.
내다버려요."

텃밭에서 캐어 온
배추를 보며
먹을 게 없다고 내가 말했죠.

"벌레가
먼저 먹어 보고
'이상 없음'을
알려 주는 것이란다."

농약을
치지 않아
무공해 식품이라며
아빠와 나는 쌈을 하지요.
'아삭아삭!'

김영기, 「이상 없음」 전문[22]

2009개정 『국어 4-1 ㉮』에 실린 「이상 없음」이다. 「이상 없음」은 벌레 먹은 배추를 보고 어린 화자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보여준다. 문제가 되는 것은 4연이다. "무공해 식품"이란 무엇인가. 공해는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이나 토양 오염 등의 피해'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람

22) 교육부, 『국어 4-1 ㉮』, 미래엔, 2014a, 167면.

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은 공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식품은 공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야 하는가. 또 무언가를 무공해 식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속하지 않는 식품은 공해 식품이 되는 것인가. 공해 식품이 어색하듯 무공해 식품도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사실 해당 표현은 '무농약 식품'이라고 말하면 된다. 내용도 그렇고 '무공해 식품'이 '무농약 식품'보다 아이다운 표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 "아빠와 나는 쌈을 하지요"라는 부분도 이상하다. "쌈"을 '싸움'의 줄임말로 보면 문맥이 맞지 않는다. 문맥을 고려하여 '쌈을 싸 먹지요' 정도로 이해하면 구절이 어색하다. 쌈을 만들어 먹는 어떠한 행위도 '쌈을 하지요'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몰래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내려와 앉으면

꽃씨는
땅속에 살짝 돌아누우며
눈을 뜹니다.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쏘옥
손가락을 집어넣어 봅니다.

꽃씨는 저쪽에서
고개를 빠끔
얄밉게 숨겨 두었던
파란 손을 내밉니다.

김완기, 「꽃씨」 전문[23]

23) 교육부, 『국어 4-1 ㉮』, 미래엔, 2019a, 34면.

2015개정『국어 4-1 ㉮』에 실린 「꽃씨」이다. 「꽃씨」는 땅속 꽃씨가 비를 맞고 싹을 틔워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유가 부정확하다. 먼저, 1연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내려와 앉으면”이다. 봄볕은 겨울에 꽁꽁 언 얼음을 녹인다. 이에 봄볕이 겨울을 녹인다고 표현할 수 있다. 추운 날 오는 눈은 그 자리에 녹지 않고 쌓인다. 이에 눈이 내려와 앉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봄비’는 어떻게 ‘겨울을 녹이’고 ‘내려와 앉는가.’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부정확한 수사인 것이다. 4연 2행 “고개를 빠끔”도 마찬가지다. 4연에서 화자는 꽃씨가 싹을 틔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다. 4연 4행 “파란 손”은 싹이 올라오는 모습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고개를 빠끔”은 어떤 모습을 비유하는가. 둘 다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비유한다고 보면 이중 비유가 된다. 싹이 올라오기 직전에 발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어색하다. 이 경우 ‘고개’에서 ‘파란 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시적 효과를 높이기보다 떨어뜨리는 불철저한 언어사용이다.

2) 실감

‘실감’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를 살펴보자. 앞에서 논의한 「운동화 말리는 날」도 실감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1연 “키대로 세웠습니다”라는 구절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몇 켤레의 운동화가 놓인 상황인가. 동시의 제목은 ‘운동화 말리는 날’이다. 동시에 나오는 운동화는 화자의 운동화 한 켤레뿐이다. 그러나 운동화 두 짝은 키가 똑같다. 키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동시는 처음에 ‘운동화 여러 켤레가 키대로 세워진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후 내용은 그것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어색함을 해소하려면 ‘엄마가 여러 켤레의 운동화를 빨았고, 화자는 그중 자기 운동화만 이야기한다’ 같은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어떠한 조건을 추가해야 상황이 성립한다는 것은 자체로는 상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아야!
아유, 아파."
책상 모서릴 흘겨보았다.
"내 잘못 아냐."
모서리도 눈을 흘긴다.

쏘아보는 그 눈빛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어쩜 내게도
저런 모서리가 있을지 몰라.
누군가 부딪혀 아파했겠지.
원망스런 눈초리에
"네가 조심해야지."
시치미 뗐을 거야.

모서리처럼
나도 그렇게 지나쳤겠지.

부딪힌 무릎보다
마음 한쪽이
더 아파 온다.

이혜영, 「모서리」 전문[24)]

2009개정 『국어 5-1 ㉮』에 실린 「모서리」이다. 「모서리」는 화자가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친 이후 타인에게 상처 주었을지 모르는 자기 마음속 모서리를 반성한다. 사람들은 자주 마음이 둥글거나 모나다고 표현한다. 「모서리」는 이러한 관용 표현으로서 모서리와 실제 모서리를 연결한다. 「모서리」의 착상은 얼핏 자연스럽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리가 잘 맞지 않는다. 누군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다. 그것은 모서리 잘못인가, 부딪친 사람 잘못인가. 책상 모서리는 책상의 일부분으로 늘 제자리에 있고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는 없

24) 교육부, 『국어 5-1 ㉮』, 미래엔, 2014b, 90-91면.

다. 반면 마음의 모서리는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은 부정적인 함의가 크다. 다시 말해, 화자가 마음의 모서리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모난 마음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상 모서리로 누군가 아파한다면 그것은 책상보다 조심성 없이 부딪친 사람 잘못이 크다. 마음의 모서리를 비판하듯 책상 모서리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모서리」의 이와 같은 조리의 부족은 실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불 켜고 공부하고 있으면
밤마다 놀자고 찾아오는 친구들.

모기, 날개미, 날파리, 풍뎅이
점박이무당벌레, 커다란 바퀴벌레, 나방들.

창문에 알림판을 내걸었다.

곤충 친구들에게

밤에는 공부해야 됨
놀 시간 없어서 못 놂
낮에 다시 오기 바람
엄마가 살충제 뿌릴지도 모름

김바다, 「곤충 친구들에게」 전문[25]

같은 교과서의 「곤충 친구들에게」이다. 「곤충 친구들에게」는 화자가 매일 밤 불 켜진 방에 나타나는 곤충들을 친구로 여기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방에 "놀자고 찾아오는" 곤충들을 나열하는 2연이 억지스럽다. 열거된 곤충 이름 중 풍뎅이, 점박이무당벌레는 비교적 친근한 대상이다. 바퀴벌레, 나방은 많은 아이들이 혐오하는 대상이다. 모기, 날개미, 날파리는 딱히 어느

25) 같은 책, 94면.

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동시는 이러한 곤충들이 한 곳에 모여드는 상황과 “커다란 바퀴벌레, 나방들”까지 친구로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가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나 마음 모두 가능할 법하지 않다. 이로 인해 화자가 “곤충 친구들”을 걱정하면서 알림판을 내거는 행동은 귀엽지만 실감을 주지 못한다.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드둑
큰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 포옹 퐁
뒷마을 연못에선
풍풍 푸웅 풍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심후섭, 「봄비」 전문[26]

2015개정 『국어 6-1 ㉮』에 실린 「봄비」이다. 「봄비」는 산골 마을에 내리는 봄비와 그 빗소리를 모티프로 한다. 집 지붕, 마당 세숫대야, 앞마을 냇가, 뒷마을 연못에서 나는 빗소리를 교향악 연주에 빗대는 것이 동시의 핵심이다. 하지만 비유가 관념적이고 묘사가 말장난에 가까워 실감이 떨어진다. 교향악은 여러 악기에서 나온 소리가 한 곳에 모여 화음을 이루는 곳에서 연주된다. 그렇다면 집 지붕, 마당 세숫대야, 앞마을 냇가, 뒷마을 연못에서 나

26) 교육부, 『국어 6-1 ㉮』, 미래엔, 2019b, 259면.

는 빗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란 어디인가. 한발 양보하여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빗소리가 정말 화음을 이루는가. 사실 「봄비」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동시이다. 1연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만 보아도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향악’ 비유도 설명된다. 「봄비」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조화를 찾아낼 수 있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시의 비유가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을 뜻한다. 한편, “퐁퐁”이나 “풍풍”과 같은 부사어는 빗소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동시 장르에서 반복되는 말장난에 가깝다. 이러한 비유와 묘사에서 산골 마을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실감하기는 힘들다.

3) 새로움

잘한 일은 동그라미표(O)다
잘못한 일은 가위표(X)다

오르막에 힘들어하는
수레가 있었지
밀어 주면 동그라미표야,
못본 체하면 가위표

힘이 드는가 봐, 하고
밀어 주었지
동그라미 하나

길에서 넘어진 아기
일으켜 주었지
동그라미 또 하나

학교서 돌아와
손과 발을 씻었지
이것도 동그라미표

동생과 놀아 주면
이것도 동그라미
엄마 일을 거들었지
이것도 동그라미

동그라미표 쌓기 참 쉽네

신현득, 「동그라미표 쌓기」 전문[27]

‘새로움’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들을 살펴보자.

27) 교육부, 『국어 4-1 ㉮』, 미래엔, 2014a, 162-163면.

2009개정『국어 4-1 ㉮』에 실린「동그라미표 쌓기」이다. 동시는 '동그라미표 쌓기' 활동을 소재로 다른 사람을 돕고, 몸을 깨끗이 하고, 동생과 어울려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동시를 구성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잘한 일은 "동그라미표", 잘못한 일은 "가위표"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잘한 일은 이러저러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잘한 일과 동그라미를 관련짓는 생각은 지극히 평범하여 별다른 주의를 끌지 못한다. 또 잘한 행동으로 언급되는 '수레 밀어주기'와 '넘어진 아기 일으켜주기'는 익숙한 예시이지만 실제로 오늘날 초등학생들이 겪기 어려운 일이다. 구체적인 관찰보다 상투적인 생각에서 길어 온 예시인 것이다. 동시로 교훈을 전달하는 일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달하는 교훈이 오늘날 초등학생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동그라미표 쌓기」에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작은 풀잎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 준 나무가 그렇고
텃밭의 상추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 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노원호,「행복한 일」 전문[28]

2015개정『국어 6-1 ㉮』에 실린「행복한 일」이다.「행복한 일」은 누군가

28) 교육부,『국어 6-1 ㉮』, 미래엔, 2019c, 259면.

를 보듬는 일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서 '뿌리를 감싼 흙', '풀잎에게 바람막이가 되어 준 나무', '상추를 둘러싼 텃밭 울타리'를 예시한다. 이 중 두 번째 예시를 생각해 보자. 보통 나무는 굳고, 풀은 약하다. 그리하여 전자가 후자를 보듬을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많은 나무는 "작은 풀잎"에 부는 바람을 막아주기에 키가 너무 크다. 더욱이 바람이 심할 때 정작 뽑히거나 부러지는 것은 풀잎이 아니라 나무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풀잎에게 바람막이가 되어 준 나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주저된다. 다른 예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투적인 인식 속에서 비롯한 예시들이다.

보듬음에 대한 생각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이다. '보듬다'는 '가슴에 닿도록 꼭 안거나 포근히 얼싸안는 것'이다. 하지만 2연을 보면 화자는 보듬음을 '보호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3연에 화자가 말하는 '보듬음'은 더욱 모호하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 주는 일과 관련될 수 있는 표현은 보듬음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한 일」이 보여주는 예시는 상투적이고, 전제하는 생각은 모호하다. 이로 인해 동시를 읽고 나면 '남을 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는 상투적인 관념만 남을 뿐 어떠한 새로움도 얻지 못한다.

4. 결론

이상으로 정확함과 실감과 새로움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교과서에 실린 시들은 모두 좋은 시일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당연한 기대와는 달리 부정확한 언어 사용과 표현, 실감나지 않는 표현이나 상황, 상투적인 인식이나 내용에 의존한 동시들이 많았다. 이러한 동시들이 별다른 반성 없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수 학습되고 있음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이 우려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시 일반의 주요한 비평적 관점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 보편적인 비평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제 동시 비평에 적용해보았다는 의의도 갖는다. 아

동문학교육 연구자들은 아동문학교육에서 활발해져야 할 영역으로 실제적인 비평을 언급한다. 본고의 노력은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동시가 좋고 나쁜지 판별하기는 쉽지 않고, 개인마다 편차도 있다. 그렇다고 객관적 기준에 대한 탐구를 회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좋은 동시를 가려내고자 하는 비평적 노력이 부정될 수도 없다. 본고에서 제시한 '정확함', '실감', '새로움'이라는 세 가지 기준은 앞으로 더 많은 실제 비평을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서 좋은 동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동시는 좋은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시를 일별할 때도 이 점은 확인된다. 정지용, 박목월 등에 의하여 비교적 오래전에 창작된 동시들은 좋은 작품인 경우가 많고, 최근에 창작되어 새로 실린 동시들은 불만스러운 작품이 많다. 이 점에서 동시 고전 목록을 만드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일찍이 유종호는 "문학적 감수성은 모국어 내지는 제1언어에 대한 민감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제1언어로 된 동요 하나 제대로 감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학 문맹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29] 뼈아픈 지적이겠지만, 동시를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를 고르는 사람도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고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동시의 문학성을 높이고, 아동문학교육 비평 담론이 풍성해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9)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a, viii면.

▮ 참고문헌

교육부, 『국어 4-1 ㉮』, 미래엔, 2014a.
_____, 『국어 5-1 ㉮』, 미래엔, 2014b.
_____, 『국어 5-1 ㉯』, 미래엔, 2014c.
_____, 『국어 4-1 ㉮』, 미래엔, 2019a.
_____, 『국어 6-1 ㉮』, 미래엔, 2019b.
_____, 『국어 6-1 ㉯』, 미래엔, 2019c.

김우창, 『시인의 보석』(2판), 민음사, 2015.
김제곤,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 창작과비평사, 2003.
김종길, 『詩에 대하여』, 민음사, 1986.
_____, 『시와 삶 사이에서』, 현대문학, 2005.
류덕제 · 임성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시 제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6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4, 67-105면.
송희복, 「한일(韓日)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와 동화」, 『한국문예창작』 제8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9, 383-413면.
어린이도서연구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육』, 어린이도서연구회, 2001.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a.
_____,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b.
이창배, 『T. S. 엘리엇 문학비평』, 동국대 출판부, 1999.
진선희, 「초등학교 시 교재 선정 기준 탐색」, 『청람어문교육』 제28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215-252면.
_____, 「초등학생의 시 읽기 과정에 드러난 시적 체험 특성 연구 (1)」, 『문학교육학』 제1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497-562면.
Lillian Smith, 『兒童文學論』, 김요섭 옮김, 교학연구사, 2000.

T. S. Eliot,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

【Abstract】

A Study on Children's Poems in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Lee, Nam-Ho*

Poetry develops a sense of language and makes the world sensitive. Poetry is an effective educational text. Of course not all poems are texts suitable for education. A good poem is more effective than a bad one. Recently, elementary Korean textbooks seem to ignore this point seriously. There are many reasons. First, prejudice about the genre of poetry. Second, the idea that Objective is more important than poetry. Third, De-constructing the Literary Canon in poetry. But there is a more fundamental reason. It is a lack of criticism discourse on children's literature. Less criticism weakens children's literature. As children's literature gets weaker,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is more likely to unstable.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at the burden of selecting a poetry is passed on to the individual. Therefore, this paper sets out some universal criteria of criticism by referring to the poetry's main critical point of view. The criteria are 'accuracy', 'realistic' and 'novelty'. And use these criteria in children's poems in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 to make practical criticisms.

Keywords: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s, Children's Poems, Practical Criticism, Literature.

접수일: 2019.09.30.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15.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